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관한 회의결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금년 12월 홍콩개최 제6차 WTO 각료회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10.27 Aid for trade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음.

- Rantzien 주WTO 스웨덴대사, Rugwabiza WTO 사무차장, Manning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이 공동주재하고, OECD 회원국의 무역 및 개발담당관,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기술지원을 위한 종합계획(IF) 회원국 대표,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

- 무역과 개발의 연계를 통해 빈곤감축에 기여한 사례로서 모잠비크 사례가 소개됨.

2. 의장단은 회의결과를 의장요약문 성격의 문서로 작성 발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문서의 성격이 참가국의 commitment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의장단은 회의결과 요약문에 대해, 참가국의 이견이 있을 경우

11.1(화)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함. 의장단이 요약 정리한 회의결과 요약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금번 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과를 증진하고 이러한 원조를 추진할 메카니즘으로서 Integrated Framework(IF)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무역관련 기술원조(TRTA)와 능력배양(CB)을 위한 ODA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국제무역을 국내개혁과 함께 추진될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용확대, 빈곤퇴치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엔진임. 그러나 개도국은 정책, 제도, 정보, 인프라 등 제분야에서 능력부족을 겪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할 능력이 부족하고, 국제무역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개도국들은 무역통합에 따르는 구조조정 압력을 관리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바,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원조를 잘 받을 경우, 도하패키지로부터 혜택을 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개도국의 빈곤완화전략에 무역부문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확대되는 ODA중에서 무역능력배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OECD 사무국은 향후 ODA가 2004년도 800억불에서 2010년까지 1300억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참석자들은 개도국의 무역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함.

가. IF 개선

- 금번 회의는 IF 강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태스크포스 설립을 환영함. 태스크포스의 핵심목표는 개도국들이 도하라운드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기회를 포함하여 다이내믹한 국제무역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도국 능력(local capacity)을 강화하는 것임.
- 참석자들은 태스크포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합의함. 참석자들은 국가능력 강화, IF 지배구조 및 예산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분야를 강조함.
 - local ownership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적 무역개발을 위한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와 민간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간 협의채널 설립의 중요성
 - I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개도국과 공여국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
 - IF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다년도에 걸쳐 예측가능

하고 점차 증가하는 방식으로 지원

- 향후 진전사항을 모니터하고 국가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IF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 이와 관련, 파리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조효과 증진이 기본적인 기준임.

나. 광의의 aid for trade 과제

- 참석자들은 aid for trade 과제가 국가적 IF process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정하고, 개도국들이 다자무역체제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aid for trade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자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파리선언은 광의의 aid for trade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원조효과에 관한 벤치마크 대상이며 따라서 무역 및 무역능력에 대한 지원은 개도국 주도 개발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 참석자들은 공여국이 천명한 ODA 규모의 확대계획에 따라 aid for trade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확대 가능성에 주목함.

다. 홍콩각료회의 및 그 이후

- 도하라운드의 자유화 패키지와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상호 trade-off 또는 substitutes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임. 2001년 도하라운드의 출범을 위해 개도국이 무역개혁에 동의한 바, 지금은 선진공여국들이 무역, 개발, 빈곤완화를 위한 원조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여국은 홍콩각료회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역능력배양 과제에 대한 지원 및 이행을 위하여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IF 개선에 전적으로 지지하며, 광의의 aid for trade 과제를 모색하고 정의하는데 지지함.

3. 동 회의 직전 개최된 제142차 무역위원회에서도 DAC 의장이 상기 문제에 대해 보고하였는 바, 일본 대표는 IF 강화동향에 대해 제네바 협상 참석자들이 보다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미국 대표는 능력배양/기술지원과 무역자유화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자료:주오이시디 대표부]